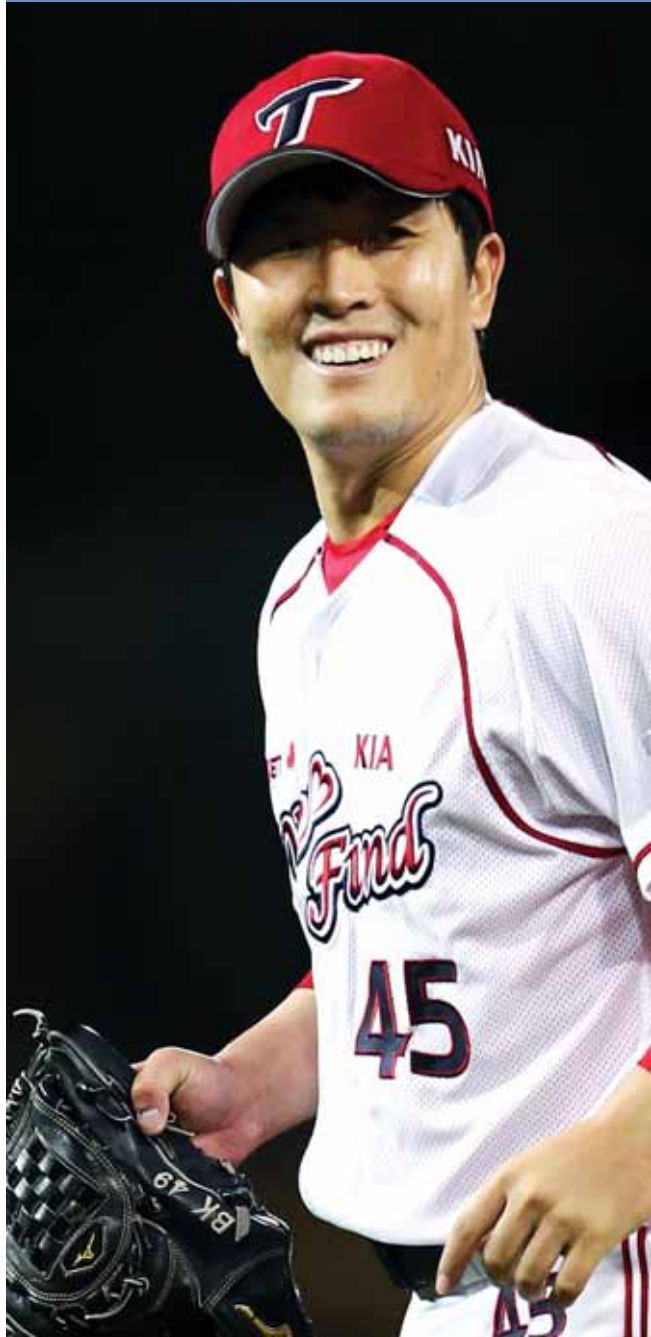


고향팀 적응 끝 KIA 김병현



“내년엔 호랑이 야성 보여줘야죠”

“올 시즌 실패 선수단 책임 커...후배들 독하게 이끌어 성적 올리겠다”

면갑을 돌아 고향으로 돌아온 김병현(KIA)의 2014시즌은 '절치부심(切齒腐心)'이었다. 지난 4월 KIA 팬들에게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다. '핵 잡수함' 김병현과 좌완 투수 김병현의 트레이드가 그것이었다. 야구 선수에게는 꿈의 무대인 메이저리그에서 세계 최정상급 타자들을 즐겼던 김병현이 세월이 흘러 흘러 고향으로 돌아오던 날. 고향 팀에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다는 그의 소원이 이뤄진 날, 많은 KIA 팬들은 애절한 마음으로 그를 반겼다.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김병현의 모습을 그리던 팬들에게도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열렬하게 그를 맞은 팬들의 마음 한 곳에는 "애타게 기다려온 그가 쓸쓸하게 그라운드를 떠나게 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일본과 넥센을 거치며 새 마운드에 선 김병현은 예전의 'BK'가 아니었다. 녹록지 않은 현실 탓에 김병현도 트레이드 후 가진 인터뷰에서 "예전의 나는 잊어주라"며 조심스럽게 미래를 얘기했다. "보직은 내가 가릴 처지가 아니다. 팀에서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한다. 1이닝 1타자라도 잡고 내려오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김병현은 시즌이 끝난 후에는 "조금씩 좋아졌다. 시즌 마지막 모습도 나쁘지 않았다. 이제부터 제로베이스에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내년 시즌이 기대된다"고 희망적인 미래를 말했다. 고향에서 마음 편하게 잔잔히 공을 던지게 되면서 김병현

은 사람들의 우려를 털어냈다. 그의 설명대로 조금씩 좋아지면서 그가 KIA 마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치열한 자기 관리와 노력은 후배들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절치부심'으로 이뤄낸 2014시즌, 내년 시즌 역시 '절치부심'이다. 성공에 가까운 고향 복귀였지만 고참으로서의 역할은 부족했다. 치열한 프로 세계에서 팀은 처참한 실패를 했다. 김병현은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성적에 대한 우선 책임은 우리 선수들에게 있다. 우리가 경기를 못한 것이다. 이 부분은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팀 성적이 아쉽다. 팀이 우선이 되고 나도 잘해야 하는 것이다"고 올 시즌을 돌아봤다. 고향 팀에서 적응도 끝난 만큼 내년 시즌에는 적극적으로 타이거즈의 영광재현을 위해 역할을 할 생각이다. '착한 후배'들을 '강한 후배'로 이끄는 게 김병현의 바람이다. 올 시즌 함께 한 후배들의 장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 김병현은 망설임 없이 "착하다"는 답을 했다. 그리고 그게 인간적인 장점이지만 프로 선수로서는 단점이라고 꼬집었다. 김병현은 "애들이 정말 착하다. 좋은 후배들이다. 하지만 야구장에서만큼은 독한 선수들이 되면 좋겠다. 악바리 같은 모습이 부족하다. 남한테 보여주지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혹독하게 하면서 근성 있는 야구를 하면 좋겠다"며 "올 시즌에는 내 자리를 잡느라 선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고참 역할도 하면서 팀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美 언론 “양현종, 양키스가 탐낼 것”... “빠른 볼·슬라이더 강점 2선발도 가능”

미국 언론이 KIA 에이스 양현종의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뉴욕 지역지인 뉴욕 데일리 뉴스가 5일 “양현종은 뉴욕 양키스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선수다”며 양현종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 최고의 투수 양현종이 메이저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포스팅을 할 것이다”며 “양키스가 이번 자유계약(FA) 시장에서 대이급 투수에 대해 관심은 없지만 양현종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양현종은 메이저리그에서 3선발급을 노리고 있다. 그를 지켜본 스카우트에 따르면 92~95마일의 빠른 볼과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을 던지며 2선발급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양키스와 함께 시카고 컵스, 보스턴 레드삭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휴스턴 애스트로스,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이번 겨울에 투수영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LB.com에서 LA 에인절스를 담당하고 있는 앨든 곤살레스 기자도 자신의 트위터에 양현종의 포스팅에 관한 글을 남겼다. 그는 “한국의 좌완 양현종이 KIA 타이거즈에 의해 포스팅 될 예정이다. 에인절스가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평균자책점 4.25, 16승8패, 2.15의 삼진/볼넷 비율, WHIP(1.4), 탈삼진(157개), 이닝(165이닝) 등 올 시즌 성적도 나열했다. 곤살레스는 또 “에인절스가 로베르토 발도빈과 800만 달러의 계약에 합의하면 포스팅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양현

종은 이번 겨울 몇 개 팀의 구애를 받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현지 언론을 통해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양현종의 해외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양현종은 올 시즌을 끝으로 포스팅 자격을 얻은 상태며, 해외진출의 키를 쥐고 있는 KIA는 포스팅을 허용했다. KIA 관계자는 “팀 입장에서는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선수의 미래를 감안해 선택을 존중해주기로 했다. 양현종이 원하는 시점에 포스팅을 요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양현종은 지난 2일 일본 돗토리현으로 출국해 심동섭, 김주찬, 이대형 등과 회복훈련을 하고 있다.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해외진출 타진 KIA 양현종

배드민턴 이용대-유연성조

코리아그랑프리 16강 안착

배드민턴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이용대(삼성전기)-유연성(수원시청)이 2014 전주비더 코리아 그랑프리 16강에 안착했다. 이용대-유연성은 5일 전북 전주실내배드민턴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복식 32강전에서 전종현-완자신(대만)을 2-1(21-10 17-21 21-15)로 물리치고 16강에 올랐다. 지난해부터 남자복식조를 이룬 이용대-유연성은 지난해 이 대회 8강에서 이용대의 부상으로 기권하는 등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대회 남자복식에서는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결승에서 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건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여자복식의 이소희(대교)-신승찬(삼성전기)은 32강전에서 찬홍원-웬신잉(홍콩)을 2-0(21-12 21-9)으로 완파, 16강에 진출했다. 정경은(KGC인삼공사)-엄혜원(MG새마을금고)도 델라 데스티아라 하리스-게비 리스티야니 이마완(인도네시아)을 2-0(21-15 21-9)으로 제압했다. 혼합복식 32강전에서는 신백철-장예나(김천시청)가 왕지린-정지아(대만)을 2-1(21-13 19-21 21-13)로 꺾었다. 그러나 혼합복식 세계랭킹 6위로 이번 대회 1번 시드를 받은 고성현(국군체육부대)-김하나(삼성전기)는 일본의 가즈노 겐타-미야우치 유이에게 0-2(18-21 20-22)로 져 탈락했다. /연합뉴스



한정미(왼쪽)와 유지연

광주체고가 흘린 ‘땀’ 체전서 ‘반짝반짝’

한정미·유지연·김우중 맹활약...육상부, 금3·은2·동1 획득

광주체육고등학교(교장 김성남) 육상부가 제주 전국체전에서 6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명성을 드높였다. '광주 육상의 기대주' 한정미·김우중·유지연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6개의 메달을 거머쥐었다. 한정미(3년)는 여고부 400m와 200m에서 금빛질주를 펼치며 2관왕에 올랐다. 한정미는 주종목인 400m에서 55초43으로 골인, 종전기록을 0.55초 앞당기며 대회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56초50)보다 1초7 빨리 질주,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이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일반부·대학부를 뛰어넘는 기록이다. 200m에서도 25초07로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해 2관왕에 올랐다. 그는 또 400m계주에서 김수정·박수연·유지연과 배턴을 이어받으며 48초06을 기록, 은메달을 추가했다. 중학교 2학년때 소년체전 단거리(100m, 2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던 한정미는 장점인 스피드와 지구력을 살려 지난해 200m와 400m 등 중거리로 주종목을 바꿨다. 한정미를 6년동안 지도한 김재대 교사는 “정미는 지구력과 스피드가 일품이다. 400m 전환한 뒤 더욱 빛을 내고 있다”며 “특히 이번 체전에는 발목·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등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대회 기록을 세우는 등 잘해냈다”고 밝혔다. 유지연(3년)은 400m계주에서 한정미와 은메달을 합작한 데 이어 200m에서도 25초25로 결승점을 통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 100m에서는 12초24를 기록해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우중(3년)은 남고부 창던지기에서 72m37을 던져 자신의 기록을 새로 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우중